

## 위기의 대한민국,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 광복 74주년 기념예배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는 참석자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한기형 목사)와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 장로)이 공동 주최한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가 지난 11일,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광복 74주년을 축하하고 어려운 조국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또 일제 치하의 잔혹한 종교 탄압 가운데서도 구국(救國) 운동에 목숨을 내어놓았던 순국선열들의 믿음을 좇아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날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나라" (시편 33: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최경환 목사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며 "좌우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이 건국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목사는 이어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일본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긴장 고조 등 어려운 조국의 상황을 냉철히 돌아보며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전한 대한민국민회 권영신 장로는 "일본 정부가 독일의 전례를 좇아 진심으로 과거사를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광복 74주년을 계기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특별 순서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 안 씨가 나서 광복절을 회고했다.

안 씨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은 비폭력에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운동이었으며,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각은 임시정부의 헌법에 집약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을 따라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자비와 양심, 관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김완중 LA 총영사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등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이자 주역이 됐다"며 "이러한 성과에는 미주 지역 동포들의 후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일본 아베 정권은 전범국가로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역사 왜곡과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를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며 "국가적 침탈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역시 서면으로 축사한 민주평통 LA협의회 서영석 회장은 "어려움에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특별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역사를 잊어버리면 반복된 불행

을 맞는다는 교훈을 기억하며 독립운동의 정신과 긍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남가주교협 한기형 목사는 "오늘날 조국의 상황은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휩쓸렸던 후한 말의 상황과 흡사하다"며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Forgive without forgetting)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며, 미주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비전 있는 통일로 주변국과 상생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 총

무)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남가주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가 기도하고 남가주교협 부회장 김순옥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에 이어 남가주교협 부회장 임경태 권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축사에 이어 광복절 노래합창, 광복회장 박영남 목사의 만세 삼창과 이정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축하음악회에는 남가주 장로성가단, 에버그린 여성합창단, 한아름혼성합창단, 소프라노 그레이스 김, 테너 이준실 씨가 연주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기독교교회협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음악회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35주년**  
 1984-2019  
 하나님과 함께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구, 삼성장로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교회사역 35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5주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은교우들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 떠난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잠시라도 나누길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뜨거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인**  
 신원규 목사, 김동진 장로, 전병일 장로, 황도성 장로, 김수성 장로, 김이집 장로, 선계원 장로, 조관국 장로, 이봉중 장로, 한기승 장로

**1 창립 35주년 기념 축하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장소: 좋은마을교회  
 특별간증: Harold Potter 변호사 / Peter Travis 집사  
 (무릎 아래가 없고 로봇다리로 장애를 이기고 선교로 삶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2 M.K.W. (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  
 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좋은마을교회

**3 G.M.G. (영성사역후원) 28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4 P.M. (3세계연지목회자후원) 7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좋은마을교회**  
 The Good Village Church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문의전화 (714) 646 - 9259

# “세상 속에 변질되지 말고, 성령 안에 변화받으라”

호성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부흥회 인도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담임 목사(좌)와 필리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우). 민종기 목사는 올해로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는 충현선교교회는 설립 4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난 30년 동안 매년 한 가정의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할 정도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설명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변질되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요, 변화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변질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호성기 목사(필리안디옥교회 담임)를 강사로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으라’는 주제로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했다.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부흥 성회에서 호성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회복을 강조했다.

호 목사는 “우리 삶의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이며 한계적

인 자아 인식과 함께 시작된다”라며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호성기 목사는 “우리 삶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며 “세상의 모든 욕망도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생명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오늘의 세대가 ‘내일과 꿈

을 상실한 시대’임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삶 동안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만, 우리 삶은 유한하기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소망과 꿈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 목사는 이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쓸모없어 보이는 맹인 거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이라며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으면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 기쁜우리교회, 나눔과 베품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 전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올해 교회 표어와 같이 받은 축복과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는 지난 11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로 나누어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고, 100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23명을 선별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위원회 최영무 장로의 인사에 이어 최종문 집사가 장학 사역 연혁과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는 2018년 발족 이후, 일반 장학금과 P.K 장학금, 신학 장학금으로 나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는 “2년의 짧은 교회 역사에서도 장학사역에 힘을 쏟은 것은 ‘이웃과 더불어’라는 교회 비전을 따라 선교와 전도에 중점 가치를 뒀기 때문”이라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경진 목사는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정체성과 신앙 교육 등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쁜우리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교인들의 협력에 박수를 보냈다.

이인규 기자



기쁜우리교회 2019 장학금 수여식

### -장학생 대표 조우용 형제 감사 전문

안녕하세요 장학금 수여자 조우용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비롯한 여기 장학생들을 믿어주시는 기쁜우리교회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래 전, 제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품고 희망차게 살았던 청년은 여러 번 기적을 겪기도 했으나, 그보다 많았던 실패와 좌절 속에 언제부터인가 구하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으며, 문을 두드리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니, 아마 두드리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회의감에 가득찼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었

기에, 이번 장학금은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취업은 험난했고, 신분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막막했던 가운데에서, 합격된 이 학교는 제게 갑갑한 길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다시 학생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기쁜우리교회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희망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여러분이라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 붙들면서 나가겠습니다. 기쁜우리교회의 표어,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흥이여 다시오라” 파이어 크루세이드 LA 집회



가 있는 예배로 유명한 파이어 크루

세이드(FIRE CRUSADE) 집회가 오는 24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는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로고스교회, HolyJoy Mission Church, 샘물교회 연합찬양팀이 뜨거운 찬양을 올리고 정기 정 목사(샘물교회)가 말씀을 전한

다. 파이어 크루세이드는 “이달 연합집회는 LA 부흥의 상징과도 같은 동양선교교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회개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LA에 크게 임하길 소원하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정은진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하늘문교회**  
**남가주명성교회**

# 교회연합 부흥회에 초청합니다

**강사 김헌수 목사(꿈너머꿈 교회)**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저녁 7시: 축복의 주인공(갈3:8-9)  
 2019년 8월 24일(토) 저녁 7시: 승리의 기념(출17:14-16)  
 2019년 8월 25일(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오늘(눅19:1-10)  
 오후 4시: 교회갱신 및 이단대책 세미나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세미나 후에 저녁식사를 대접합니다

**장소 남가주명성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공동 주최** 하늘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 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 남가주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 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연락처** (213)505-0191(한기형 목사) | (213)445-9182(정해진 목사)

# “ACTS가 살아야 한국 교회와 선교가 살아납니다”

## [인터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정흥호 총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이하 ACTS) 정흥호 총장이 남가주를 방문했다. 정 총장은 자신의 임기 중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학교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 인터내셔널 미션센터 건립과 커리큘럼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교회 선교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장기적 안목'과 '교육 선교'를 꼽았다. 아하는 일문일답

### -ACTS를 소개해달라

“ACTS는 196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아-태평양 전도대회에서 아세아 교회 지도자들은 아세아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건립을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빌리그래함재단이 10만 달러, 미국 유명한 목재상 웨어하우스의 15만 달러를 비롯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 교회의 헌금으로 세워진 국제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교회연합적인 대학이다.

1974년부터 한국에 복음주의 신학의 기틀을 놓았고 이 기반 위에서 세계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 '아세아 복음화'라는 표어를 실천적 목표로 삼아 신학연구와 선교 교육을 통해 세계복음화, 특별히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국제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이다.

지금까지 48개국에서 520여 명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는 18개국에서 온 65명의 외국인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과 성과는 무엇이었나?

“이번 방문은 ACTS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가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원포인트 설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학교를 소개하

고, 남가주 지역 학교 관계자들과 교류하기 위함이었다. 선교라는 주제로 학교 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ACTS 총장으로 일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총장으로 선임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문구가 'ACTS가 살아야 한국 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였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 침체기로 접어든 모습이다. 영적 개혁과 교회 구조 개혁과 같은 강력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부흥을 일으킬 불꽃이 일어나야 하는데 ACTS는 초교파 신학대로 국제적, 복음적, 교회 연합적, 선교 지향적인 학교다.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 모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ACTS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 -학교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컴퓨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듯, 외형적으로는 종합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관인 인터내셔널 미션센터 건립을 임기 중 이루고자 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학교 내 개혁과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도 시급하다.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가?

“한국의 신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지면서 목회자와 교회 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신학교 지원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영 논리로 보면



정흥호 총장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1997년부터 올해까지 22년 동안 ACTS에서 선교학을 가르친 교수 출신 총장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사명과 본질로 돌아가면 해결점이 보인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나? 위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수동적인 태도로 위기를 수용하기보다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 양성이란 학교의 비전으로 학과와 커리큘럼의 변화, 학교의 구조 개혁, 재정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ACTS의 정체성을 끝까지 불붙고 선교 지향적인 학교로 나아가고자 한다.”

### -ACTS가 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ACTS의 두 가지 모토가 있다. 하나는 신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이다. 이것은 학교를 지탱하는 큰 두 기둥과도 같다.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다. 신본주의 대신 인본주의를 따르며 마치 '하나님이 아닌 저 사람이 우리 학교를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또 복음의 정신이 아닌 다른 신앙관을 좇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위기를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만 보고 가자지 돈을 보거나 사람을 보

고 가면 안 된다.

“ACTS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문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회복은 ACTS를 살릴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는 한국 기독교를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위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한다.

또한 ACTS는 교회 연합적이다. 초교파로 장로교, 감리교, 성경교, 순복음 등 교회와 교파가 다르지만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학교다.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선교학자로서 한국 교회 선교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한국 교회 선교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에서, 잡는 법을 가르치는 선교'로 바뀌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선교에서 섬기는 선교'로 전환돼야 한다.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선교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선교는 선교의 단기적 효과를 추구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인들이 일어나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다시 말해 신학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바른 신학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995년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열 손가락에 꼽혔다. 그러나 지금은 50명도 넘는다. 신약, 구약, 조직신학 교수들이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좋은 인적 자원을 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신학교육 인프라가 약한 곳이 너무나 많다.

또 예전에는 교회가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회도 직접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하기보다는 연계성을 가지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ACTS의 선교 방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국 복음화이다.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을 선교하도록 돕는 것이다. 환경적 목사님과 같은 한국 교회 초창기 목회자들이 유학을 다녀온 후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준 것처럼, ACTS 졸업 후에는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선교 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 졸업생 중에는 한국에 남아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 -어떤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 것인가?

“부족한 사람을 총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학교를 쇄신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복음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며, 섬김과 희생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ACTS 총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고자 한다. 김동욱 기자



본보를 방문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정흥호 총장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설교학 신성욱 교수

# 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 체육대회

사당동과 양지 캠퍼스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사역을 준비했던 자랑스런 남가주에 계신 모든 총신 동문들이여! 이 가을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며 한바탕 뛰어봅시다!!!

**일 시** : 2019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예수 커뮤니티 교회 (담임 박경일 목사)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참가대상** : 총신대학교 대학부, 신학대학원, 목연, 대학원, 박사원 등 졸업생 및 가족  
**문의** : T. (213)507-3875(회장), (213)675-3767(총무)

- 명예 대회장 : 김혜성, 윤성원, 최순길
- 대회장 : 김경일
- 부대회장 : 정우성, 지윤성, 하요한, 남성수, 박경일, 김미선, 민경엽
- 준비(진행)위원장 : 김선일
- 진행위원 : 서오석, 곽부환, 신용재, 정총일, 신춘식, 장상근, 김미선, 오지은, 김시은
- 심 판 : 축구(양경선), 피구(장상근), 훌라후프(정우성), 족구(김광삼), 릴레이(하요한)
- 행운권 추첨 (50명)

- 대회 종목**
- 1) 축구 (남 11인제, 전 후반 20분, 청백) : 총22명
  - 2) 피구 (여 15인제, 단판, 청백) : 총30명
  - 3) 훌라후프 돌리기 (남녀 각 10명 - 1, 2, 3등) : 총20명
  - 4) 족구 (남 6인제, 세트 10점, 3판 2승제, 청백) : 총12명
  - 5) 500m 릴레이 (남녀 총9인, 청백팀) : 총18명
    - 65세 이상(남) : 1명(50M) : 2명
    - 55~6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 : 4명
    - 45~5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 : 4명
    - 44~35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 : 4명
    - 35세 이하(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 : 4명

##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후원 : 예수서원, 미주한인재단LA, 이음카페, BIZPOST GROUP, 한국장의사, 거주장의사, 삼호관광, 아주관광, 새한여행사, 기독일보, 기독서적, 생명의 말씀사, 한아름관광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행복한 습관이 행복으로 이끕니다!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3

## EM도 선교지로 보아야 한다

선교훈련 과정 중에 선교 현지의 문화와 정서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지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현지인의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인해 오히려 선교의 시행착오로 선교의 문이 더 닫힐 우려가 있다.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제3세계의 선교는 그래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같은 지역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미주 안의 EM들을 우리는 타문화권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율타리이지만 언어나 정서가 다른 영역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얼마 전 한인 교회에서 EM사역을 하는 30대 초반의 목회자가 필자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가 속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했다. 이유는 어쨌든 교우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 분립하기로 하였다. 그의 고민은 그런 교회 안의 한국 어권 1세들의 갈등과는 관계없이 EM권의 성인예배와 청년대학부 더하여 youth 그룹까지도 다 순조롭게 목회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한어권의 한쪽 편 리더십이 자신을 찾아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물었다고 했다. 순간 충격을 받았고 당황하여 답을 못했다 했다. 필자는 어떤 대답도 못했다. 결국 1세들의 갈등의 잣대가 아무것도 모르면 EM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구나 하는 비탄감이 들었다. 이제껏 많은 한인교회들의 1세대 리더십들의 분쟁으로 2세대와 영어권까지 분열되고 말았던 전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도 30년 목회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잘 성장하던 교회 안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로 교회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있었다. 나의 목회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회화를 원하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기도하며 응답을 얻었다. 내가 양육하고 리더십으로 세운 그들과 다름을 할 수 없었다. 필자가 한 리더십에게 물었다. '남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로 화합해서 교회 잘 이끌 수 있겠느냐고. 그들이 대답했다. '네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임을 했다. 지금 생각해도 백번 잘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

해 주심을 믿는다. 나를 지키는다는 명목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다투고 그들을 밀어내고 교회 건물을 차지하는 것이 이긴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또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잘 성장하는 자녀들을 포함한 EM들에게 교회의 분규로 인해 상처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선교비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기도도 꿈꿨다.

많은 EM들이 1세 한인 리더십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말은 너무 자주 교회 안에서 다투며 용서와 화합이 없었다. 나누고 자기들에게도 한 편을 따르라고 강요한다 했다. 그리고 자기편에서 서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원수처럼 대하여 결국 심한 상처를 입고 그들은 1세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 교회만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경향도 많다.

그렇다. 우리 2세들을 포함한 다민족 EM은 한인 1세대인 우리들에겐 선교지나 다름없다. 또한 그들이 우리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의 미래요 꿈이다.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사역 중 으뜸은 단연 선교이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신 영혼구원의 꿈으로 1세와 2세 그리고 다민족 EM이 하나 될 수 있다. 필자의 교회는 EM이 다민족이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거기엔 한인의 개념이 없다. 물론 어떤 편향된 민족적 선입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열방을 향한다. 그들의 하나님의 꿈이다. 설령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 반목으로 연합이 어려운 지경이 되어도 우리의 2세가 포함된 EM만은 보호하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자.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끈을 이어가자.

World Share USA는 2019년 8월 현재 아이티 쓰레기 마을 "투찌에"를 돕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만든 팔찌를 팔아서 주민들에게 일감과 수입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난관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첫 번째 난관이 주민들의 생활습관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팔찌를 만드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서 숙련된 일군을 만드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서둘렀지만 일을 하였고에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노임을 주면 넷째 날에 결근을 합니다. 겨우 일을 할 만하데 일하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스태프들이 이유를 알아보면 3일간 일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일주일 분에 해당하는 수입을 이미 얻었으니 쉬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접할 때마다 문화와 관습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문화와 관습을 만드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習慣)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개인적 행동을 말합니다. 문화는 습관이 정신과 신념, 철학을 담은 행동양식입니다. 관습은 공동체가 가진 집단적 행동양식입니다. 문화와 관습이 사회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삶을 낳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성숙한 문화와 성숙한 관습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문화와 관습의 형성을 위해 성숙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에 의해 습득된 것입니다. 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관명되는 존재다. 따라서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닌 습관에서 온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선행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일 선행(善行)을 실천하려고 일상을 꼼꼼히 계획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그의 산책은 단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답니다. 웨런 버핏은 8살부터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져서 평생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보다 독서량이 5배나 되는 독서량을 자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과 포옹'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포옹이 가능하고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습관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뇌가 활동을 절약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이

라고 합니다. 습관 형성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된 영국 런던대학 심리학과 제인 워들(Jane Wardle) 교수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완전한 습관화가 형성되는 기간이 66일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의 형성은 66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힌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백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습관은 7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결심을 굳게 하라! 예외를 거부하라! 남에게 선언하라!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라! 입으로 확인하라! 끝까지 실천하라! 스스로 보상하라! 요약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의도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살아가는데 치명적입니다. 근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근사하고 행복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의 감정, 기쁨의 정서로 상황에 대처하는 습관이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감성 습관은 현실 분석과 상황 판단 이전에 저절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한 언어 습관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 앞에서 판단과 분석을 하지 않고 저절로 행복을 말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행동양식이 행복 습관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런 행복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복학자들이 추천하는 행복을 위해 꼭 습득해야 할 행복 습관들을 다음 주에 소개합니다.

### [동정]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2019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 인도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오는 8월 14(수)부터 16(금)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갈리교회(담

임 목사 김광태)에서 진행되는 시카고 지역 연중 최대 교계행사인 2019 할렐루야 대성회를 주강사

로 인도한다. 한기홍 목사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라"는 주제로, 시카고 지역 교계에 변화와 회복을 일으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제약관련연한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 특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된다”

## [인터뷰]올림픽치과 이동희 원장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만 했던 치과는 공포 그 자체였다. 낯선 울리던 진동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치과 문을 다 열지 못한 나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그 당시 코 끝을 스치던 치과의 짙은 소독약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 그날 이후 '치과에는 다시 오지 않겠노라'며 누구보다 양치를 열심히 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치과는 기자의 어릴적 기억과는 상당히 달랐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올림픽 치과에는 치과진료가 무서워 울던 아이도, 진한 소독약 냄새도 없었다. 대신 진료를 마치고 '고맙습니다'를 크게 외치며 나가는 남성의 호탕한 웃음과 편안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 장비도 개선됐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향상되었지만 뭔가 특별한 편안함과 따뜻함이 치과를 감돌고 있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는 이동희 원장을 만나며 치과에 대한 기자의 아픈 기억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동희 원장은 서울에서 14년 동안 개인 치과를 운영하다 2016년에 미국 치과 면허증을 취득하고, 올해 1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별문에서 올림픽 치과를 시작했다. 개업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치

과는 예약 손님으로 분주했다.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큰 통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입소문이 낮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남가주 여러 지역에서부터 멀게는 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주에서까지 찾아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는 통로가 된다

이동희 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비결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원장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질환의 경중(輕重)을 떠나 고통을 가진 환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정성스럽게 치료한다”라고 말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다소 '편한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반복적으로 거의 매일 같은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목과 손목, 어깨에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직접 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 원장도 한 때 지속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점도 많았다. 그러다 무거웠던 일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



환한 웃음으로 환자를 맞이하는 올림픽치과 이동희 원장

수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치료를 할 때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는 통로가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 진료가 힘들지 않게 되고, 치료 결과도 좋았습니다.”

### 환자,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진료한다

올림픽 치과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또 다른 이유는 '병원에서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과 환자들의 대화에는 다른 병원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치료에 관련된 대화 이외에도 가족의 대소사, 소소한 일상 등 가족과 같은 대화가 오간다. 의사와 환자라는 경직된 관계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병원이었다.

이 원장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빵을 사오거나, 점심 도시락을 놓고 가기도 한다. 또 치료

를 마친 노인들은 꼬깃꼬깃 모아뒀던 지폐 몇 장을 이 원장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면서 고마움을 전한다. 아팠던 이를 깨끗하게 치료해줬을 뿐 아니라, 이 원장의 친밀함과 인간미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여기는 안 아프다”이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다가선 따뜻함이 만들어낸 효과였다.

치과 치료 관련 의학적적들로 가득찬 이 원장의 책상 뒤에서 두툼한 크리스천 카운슬링 책이 눈에 띄었다. '상담도 공부하는가?' 묻자 이 원장은 “치료에 있어 환자와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환자를 대하면 그가 가진 고통을 이해하기 보다는 내가 해야 할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그러면 환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환자의 마음을 의사가 함께 나눌 때, 환자도 치료하는 손길에서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한다

이동희 원장은 최근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3D 디지털 임플란트 장비를 갖췄다.

3D 디지털 임플란트는 3차원(3D) 컴퓨터 단층촬영(CT)과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구강을 촬영한 뒤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경로를 찾는다. 임플란트 시술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도 적고 출혈이 많지 않다. 그만큼 통증도 완화되고 회복도 빠르다.

이 원장은 “기존 임플란트 방법에 비해 시술 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내원 횟수도 줄었다”며 “잇몸 절개를 최소화해 회복이 빠를 뿐 아니라 환자 특성에 맞게 시술할 수 있어 안전하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치과 치료 장비도 현대화와 발맞춰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림픽 치과는 일반 치과 진료를 포함해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환자분들의 아팠던 이가 깨끗하게 나아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동희 원장은 “현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올림픽치과 이동희 원장은 최상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최근 3D 디지털 임플란트 장비를 도입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이동희 원장

**올림픽치과**  
전화 : 213-385-4011  
주소 : 2655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정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원, 목회학(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호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성경사역학철학박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정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u.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6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 SUMMER SPECIAL SALE



###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 잔 강 목사 지방회장 선출



전임 지방회장 오병익 목사(좌)와 신임 지방회장 잔 강 목사(우)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 단체사진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제 4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잔 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신임 임원으로 지방회장에 잔 강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부지방회장으로는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 장로 부회장으로 문장혁 장로(남가주새언약교회), 서기에 잔 양 목사(굿프렌즈교회 담임), 회계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 담임), 부서기 강정윤 목사(올리브브라이프교회), 부회계 엄인애 목사(남가주벤엘교회)를 선출했다.

1부 예배에는 잔 강 목사의 사회로 최낙현 목사가 기도예 이어, 오병익 목사(남가주벤엘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빌

립서서 4:1-13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잔 양 목사의 광고에 이어 박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부에서는 임희철 전도사(섬김과나눔교회)의 목사 안수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된 제17회 미주총회에 따른 각종 청원서와 헌장개정문을 다루었으며, 지방회와 미주총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방안을 토의했다.

잔 강 목사는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2016년 제14차 뉴저지 총회에서 미국 서부지역에 또 하나의 지방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창립되었으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교단”이라고 소개했다.

정은진 기자

## 4인 4색 콘서트

### “수준 높은 연주와 감동이 함께” 호평



LA 다운타운 콜번 지퍼홀에서 열린 4인 4색 콘서트

LA에서 활동하는 유명 지휘자 4명이 한 여름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수놓았다.

지난 9일 저녁, LA 다운타운 콜번 지퍼홀에서 열린 4인 4색 콘서트가 오정근 지휘자가 감독하는 LA 마스터 오케스트라와 장상근, 조지현, 손한나 지휘자는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명곡을 서로 다른 색상의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연주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대회 서부지구 우승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프라노 신선미와 세계적인 3개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국립 오페라단 종신 단원인 바리톤 지현식, LA 마스터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Ye Organization의 대표인 테너인 황호진 등의 출연으로 음악회를 빛냈다.

장상근 지휘자(LA 한인회 합창단 지휘자)가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인 ‘마술피리’와 ‘피가로의 결혼’으로 첫 무대를 열었고, 손한나 지휘자(LCRC 지휘자)가 비제의 ‘아름리의 여인’을, 조지현 지휘자(YE Children’s Choir 지휘자)가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과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를 연주했다.

마지막 무대는 음악 감독인 오정근 지

휘자가 ‘루치아 라메르무어’ 갈라 프로그램을 연주해 대중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매끄러운 기획과 진행, 지루함 틀을 주지 않는 다양한 순서 등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연주 시간도 쉬는 시간 없는 1시간 30분 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다음을 기약하게 하는 설렘을 갖게 하기도 하였다.

연주회를 관람한 300여 명의 관객들은 “수준 높은 연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껏 누린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호평했다.

황호진 대표는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클래식 연주는 많은 부분 후원으로 비용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규모가 제법 큰 연주회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많은 연주자들과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및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는 리빙스톤 씨더씨(Livingston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활동을 돕는 자선 음악회였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정은진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2부예배 오전 9:45(세-토)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면2세대를 확립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수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말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주중동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출입 위해)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중동부 오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620-7240 Email: lasehil@211signa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주중동부 EM 오전 11: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성**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주중동부 예배 오전 11:00  
주요청년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영남예배) (소셜메시)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신. 초. 호 정성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가)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979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현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 레슨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8:00  
1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8:00  
(818) 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과거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탈북자 및 성도 4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회 탈북자를 품습니다' 행사를 열던 모습. 행사에 참석한 남한 목회자들이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 통장 잔고 0원, 쌀은 없고 고춧가루만 봉지에...

굶주림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40대의 한 탈북 여성과 그녀의 여섯살 된 아들. 위 내용은 이들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다. 굶주림을 피해 한국으로 왔는데 굶주림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국내 '탈북자 인권'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년 전 입국한 이 탈북 여성이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12 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모자가 생활고로 인해 아사(餓死)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보증금 547만에 월세 9만 원짜리 13평 임대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모자의 시신을 신고한 아파트 관리인도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가 됐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들이 사는 집을 찾았다고 한다.

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통일부를 비롯해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자 지원을 위한 단체는 국내에 무수히 많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문제는 이번 봉천동 모자 사건에서 보듯, 이런 단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김 대표는 "북한 인권을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정작 옆집에서 같은 탈북자가 죽어가는 것도 몰랐으니 우선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마치 거미줄처럼 탈북자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이들이 정말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탈북자로 목회자가 된 강철호 목사(새터교회)도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을 지원 하는 단체들은 많다. 지원 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런데 이 돈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에게 잘 가지 않는다. 생색내기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탓이다.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국 당시 이 여성은 우리 정부가 적응 교육을 마친 탈북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을 약 9개월 동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중국 동포인 남편이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한 이 여성은 아들까지 병에 걸리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수는 3만2천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권 운동가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는 약 30개, 그 외 탈북자들의 친목 단체는 대략 70개다. 김 대표는 "이들 단체 회원들과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탈북자들을 뺀 나머지 약 2만5천 명은 전체 탈북자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김성민 대표는 특히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 교회를 의지했다. 교회가 그들을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그 동안 교회가 해왔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그는 "특히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낯선 땅에 적응하며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그들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어쩌면 다가올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를 탈북자들의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장신대 세교모 "명성교회 청빙 무효 판결 환영"



총회재판국 국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에서 12일 '총회 재판국의 적법한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교모 측은 "지난 8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제103회(2018년) 교단 총회의 결의가 오랜 진통과 산고 끝에 이행됐다. 세교모 소속 교수 일동은 교단의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일반 방송매체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사실상 한국교회의 앞날이 달린 역사적 실험대였다"며 "자칫 '맛 잃은 소금(마 5:13)'으로 전락할 뻔했던 한국교회가 이번 재판 판결로 그

나마 제 위치를 찾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세습의 당사자인 명성교회 당회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교단의 질서를 또 다시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디 명성교회가 스스로 내세우는 '머슴 목회'의 처음 정신을 회박하여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고 전했다.

또 "총회 임원회는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에 진력할 수 있도록 단호한 지도력으로 교단 질서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장신대 교수들은 명성교회가 속히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개혁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 계속된 총기 사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맥스 루케이도 목사, 폭스 뉴스에 관련 글 기고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해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환난의 때에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7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폭스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를 선택한다. 정치인들에 분노하고 총기협회에 분노한다. 또 하나님께 분노한다. 우리는 점점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 관해 비판적이 된다. 공포는 또 다른 선택이다. 문과 창문을 닫고 모든 그늘지고 어두운 골목을 피해 다닌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루케이도 목사는 “그러나 성경은 이같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파도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오시는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나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이다(I AM).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는 성실함과 능력의 이름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실까 염려한다면, 그분은 ‘나이다(I AM)’라고 대답하신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능하실까 염려한다면, 그분은 ‘나이다’라고 선언하신다. 어둠 속에서 의심 외에는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이다’라고 대답하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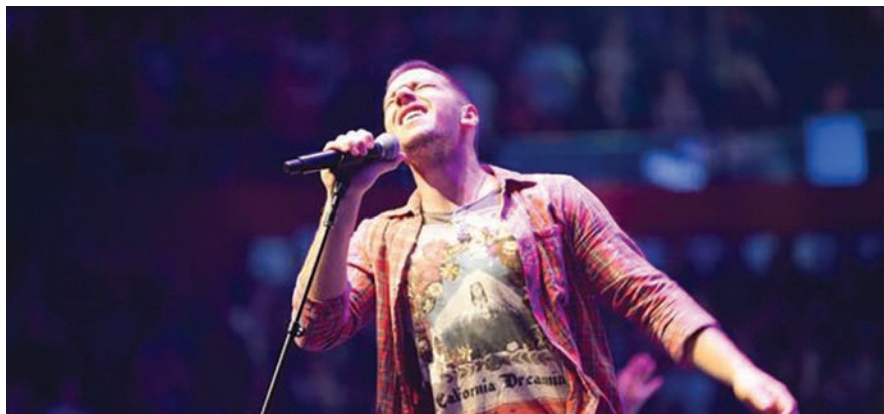
루케이도 목사는 독자들에게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라.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그분의 임재다. 그렇다. 우리는 이 폭풍이 지

강혜진 기자

# 신앙에 회의 느낀

## 힐송 전 워십리더를 위한 조언

### 마이클 브라운 박사 “십자가 보지 못했나?”



힐송의 전 워십리더 마티 샘슨(Marty Sampson). ©Marty Sampson Official Facebook

미국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L. Brown) 박사가 12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힐송의 전 워십리더 마티 샘슨(Marty Sampson)에 대해 언급했다. 마티 샘슨은 최근 자신의 SNS에 “신앙을 잃고 있다”고 적어 주목을 받았다. 마이클 박사는 “내가 가장 괴로운 것은 그가 신앙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은 항상 무너질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비극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박사는 “더 놀라운 것은 마티의 신앙적 물음에 대해 마티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라며 “비난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마티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온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마이클 박사는 “마티는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쓰러지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 몇 주에도 변질한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쓰여졌다. 또한 그가 가진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책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주요 성경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고, 검색을 해도 수 천개의 웹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 ‘진정한 진리’를 원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그러나 마티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누가 기꺼이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인가? 누가 실제로 진실을 찾고자 하는가?”라고 물

었다. 또 마이클 박사는 “마티가 ‘과학은 종교를 꿰뚫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며 “과학적 도전에 답할 수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학술적인 기독교 벽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눈 사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슬픈 것은 마티가 ‘기독교는 내게 또 다른 종교 같다’고 한 것”이라며 “그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 이슬람과 힌두교도들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증언, 지구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일까?”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티와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질문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거기서 건전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가보다 변절, 또는 깊고 은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마이클 박사는 “나는 47년 동안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랍비들의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금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권면하며 “마티 샘슨은 겸손과 열정으로 진리를 찾는 진정성을 지녔을 것이다. 그의 회개와 회복, 그 이상의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회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대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이름없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벌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5:30(월-토)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1:30 한국화교(화)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Q)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적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모로 세례를 받아 함께 할러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생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성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5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8: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뉴욕 주요 한인교회들의 리더십 교체



목양장로교회 1대 담임에서 물러나는 송병기 목사(좌)와 뉴욕열방교회 1대 담임에서 물러나는 안혜권 목사(우).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 1대 담임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목회자인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와 열방교회 안혜권 목사가 11일과 18일 각각 은퇴식을 갖는다.

안혜권 목사는 1998년 2월 열방교회를 개척해 21년을 담임으로 섬겼다. 구역의 일관된 목장을 활용해 역동적인 목회를 펼쳤고 아이티 대지진을 기점으로 아이티 선교에 적극 나서는 등 해외 선교에도 큰 비전을 제시했다. 뉴욕열방교회 후임은 고성민 목사다.

목양장로교회는 송병기 목사의 은퇴 감사예배 및 원로목사 추대식을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이날 후임 허신국 목사의 취임예배도 함께 열

린다.

송병기 목사는 목양장로교회를 83년 개척해 담임으로 36년을 섬겼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선교의 사역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목회 비전 아래 진솔한 목회로 성도들을 이끌어 왔다. 특히 전통이나 제도,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지양하는 가정교회를 도입해 가장 빠르게 정착시킨 바 있다.

송병기 목사는 교계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27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KPCA 총회장, 뉴욕목사회장 등 교단 및 교계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김대원 기자

“북한, 가장 통제 강력한 독재·노예 시스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NYT 인터뷰서 밝혀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통제가 강력한 독재, 노예 시스템이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5) 목사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북사업을 하던 김 목사는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약 31개월간 억류 생활을 했다. 북한은 그에게 간첩과 체제 전복 혐의를 적용해 2016년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한미 정보당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도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정보기관이 자신에게 접근해 스파이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이 같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지면서 더 혼란스럽고 궁금해졌다”면서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 정보기관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이 매체



김동철 목사 © CNN 보도 화면 캡처

는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체포된 후 자신에 협력했던 북한 인사 6명이 처형됐다면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 앞서 같은 해 5월 석방됐다.

강혜진 기자

합동 이승희 총회장 “재임 중 북한 관련 일 할 대북 창구 열었다”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내달 이임을 앞두고 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는 “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나 금전적 문제 등에 휘말리지 않은 것,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싶다”며 “이제 제 103회 총회가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단이 대북 관계가 약했다. 다른 교단은 그런 기구와 루트가 있는데, 우리는 직접 창구가 없었다”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난 번 통일준비위원장을 했을 때 해보려 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하지 못했다. 이에 총회장이 되면서 그 일을 좀 추진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회 임원 및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북, 북한 산림총국과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추진 및 산림녹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방북 일행은 봉수교회를 찾아 약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성과는 분명 있었다. 우리 교단이 다른 NGO 단체 등을 통하지 않고도 (북한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우선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미미하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지만 일단 (대북)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했다.

또 새 총회회관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쓰고 있는) 총회회관을 임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은급재단이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은급재단은 지금보다 약 7배 더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교회에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짐을 지우지 않고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현재 유재재단과 은급재단에 이를 설명해서 서로 이해가 된 상황이다. 제104회 총회의 허락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총신대와 관련해서 “(이제서) 총장 선출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선출 과정에서) 어떤 세력이 움직이거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임시이사들이 학교와 총회 쪽 위원들과 함께 잘 선택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34주년 생일에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한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chronos)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는 연대기적인 시간이며, 연속되어진 흐름 속에 있는 시간으로서 여기서 역대기(chronicle), 연표(chronology), 시계(chronometer) 등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kairos)라는 시간은 어떤 사건이나 그 의미가 주어진 특정한 때와 관련되어진 시간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되면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라는 단어, 즉 순간이나 때(mom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주일에 교회를 마치고 도서관에 와서 밤이 맞도록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그때에 저는 영적 추억을 가지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등학생이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는 십계명의 제 1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그 날은 저의 삶의 전후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중간고사를 마치고 동네 뒷산을 올라가 비가 견히고 난 뒤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왕산과 북한산과 도봉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같은 총현선교교회의 교우가 된 우리들에게 1985년 8월 11일은 교회가 창립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글렌데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근

거지가 생긴 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의 창립에 참여하신 고 정상우 목사님과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창립된 교회는 34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왔습니다. 중년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크고 작은 봉헌과 기도로 현재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역사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가 선교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주신 은총 안에서 일관되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와 신학교와 학교와 기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세계 속에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귀중한 미래의 선교적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을 카이로스적 의미가 있는 날로 만드십니다.

###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지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거둬고 통스러운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싫어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문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문제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핵심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에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연구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둘째,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면 문제 속에 문제 해결의 씨앗이 담긴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옛날에 심각했던 병도 지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조용히 바라본 후에는 문제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해결책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왜 내게 문제가 찾아왔느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

십시오. “왜”라는 질문은 잠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된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셋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흥해가 갈라진 기적,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환자가 낫는 기적,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등을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넷째,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약 1:5). 문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란 직면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힘든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해결의 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졸업하신 분
-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3. 미국 체류에 법적 문제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 4. 자기 소개서
- 5. 최근 설교 CD
- 6. 추천서

#### ■ 제출 방법

-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 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 여 : 상의 후 결정
- 사역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 부장 T.(201)522-3011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 (201) 567-3535

www.gracelovechurch.org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 (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목회자료  
 목회일지  
 목회일기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크기 **금매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9월**

대추도 따고 BBQ파티하러 출발~  
**대추나무 가을 여행**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 &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페달 보트 타기) & 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따기)

**\$99** 9/21(토) 당일  
 페달 보트 포함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숍 단풍**

Sabrina Lake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199** 10/20(목)  
 1박 2일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천 오백만원 보험가입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이용도 목사)

이용도의 부흥운동은 장로교회 목사인 김선주, 김익두의 사경회와는 달리, 독특한 방향에서 출발하여 결국 이단정죄로 끝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김선주 목사의 부흥이 철저한 성경공부에 기초하고 있었고, 김익두 목사의 부흥이 성령 치유 이적 역사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이용도 목사의 부흥은 자기 개인의 영적 체험에 근거한 신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적 기초가 약한 개인적 신비 체험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용도는 다음에 거론할 자칭 예수 황국주(黃國柱)가 평양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평양 기도단원들 앞에서 "내가 서울서 황국주 선생을 만나 보오니 참 성자입니다. 오! 주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화한 목사들과 같이 황 선생님을 반대하여 성신 훼방죄를 범하지 말고 평양에 영접하여 은혜 받으시다."라고 간절히 권고한 데서도 그의 신학적 기초가 약한 감정적 신비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용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의 장점을 보면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3일이고 일주일이고 무아의 지경에서 기도를 하였다. 사경회 기간 중 설교시간에 기도만 하고 끝나는 때도 있었다. 한국 교회에서 그의 기도를 따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방지일 목사는 회고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물집에 대해 추호의 탐심이 없었고, 새 두루마기를 입고 나갔다, 길가의 거지에게 그대로 벗어 주고 들어 오고, 사경회에서 받은 거머비를 거지에게 봉투째 준 일은 비밀비재하다. 장로교회의 송창근 목사가 미국 유학 여비가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집을 팔아 여비를 준 일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송목사는 장로교 목사이고, 이목사는 감리교 목사다. 서로 잘 아는 처지도 아니다. 그러나 그가 여비가 없어 갈 수 있는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을 팔아 여비를 준 것이다. 당시 목사들 중 과연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목사가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가 모인 집회에서 기도시간에 소등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들은 기성교회로부터 백안시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했다. 특히 목사이자 그가 귀신들린 여자 평신도인 유명화(劉明化)에게 옳되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 할 수 있다. 후에 왜 귀신들린 여자에게 주님이라 했느냐고 물으니, 나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라 말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말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만일 당나귀가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나는 당나귀에게도 주님이라고 말 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이용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해야 한다. 전기 즉 사이비 집성과와 어울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의 신비주의적 요인은 교회가 용납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후기와 와서 점성술과 그 추종자들과 행한 작태는 도저히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단사실에 빠지고 말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용도는 해주(海州)집회에 갔다 몇몇 교인들로부터 못매를 맞고, 원산에서 치료하다 지병인 폐병이 도져 결국 1933년 10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그렇게 흠모하고 열애하던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때와 같은 나이였다. 나이가 젊었고 병이 너무 짙었던 것이 그의 신학이나 사상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 중요 원인이라 판단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필자는 이용도 목사론에서 "그는 자유인인가, 이단자인가?"라는 글에서 그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자유인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말했다. 물론 그에게서 이단적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교리에 어긋난 설을 설과 한 일은 없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을 한 것은 그가 자유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즉 기준에 있는 법과 규율과 법도를 어기는 행동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쉬운 것은 그가 지병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지나친 비판주의가 그의 생과 삶을 조기에 끝나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는 한국교회에 나온 신비주의자의 사랑을 이성간의 성애(性愛)로 전락시킨 점, 여신도들과 지나치게 많은 서신교환을 한 것, 남녀

### 기고

## 김정은 핵무기 실질적 대비해야



김상영 교수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하필 김정은호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정은 더 이상 현실을 도의시한 허무맹랑한 상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가정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정부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나친 걱정도 문제이지만 단일한 생각은 재앙에 속수무책이 된다. 전 세계 13개 국에 핵폭탄이 존재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실질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 김정은 1일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최대 압박정책으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이 코너에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된다면 자살 폭탄테러를 하듯 미국으로 향하는 핵미사일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요격미사일은 동시에 발사된 여러 대의 북한발 핵무기들에 대해 100% 요격을 확신할 수 없으며, 근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경제부흥이나 다른 대가를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실하는 북한 전문가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핵미사일이 미국 땅 특별히 L.A. 근교 지역이나 서부 해안에 떨어진다던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를 조망해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1941년 12월 7일, 예상치 않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사건은 (핵무기의 피해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엄청난 희생과 함께 미국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때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핵공격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는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되는데,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잘 구분 못하는 미국인들도 있다

는 것은 인종차별과 같은 반한인 행동(Anti-Korean Activity)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반미주의자들의 이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극히 파괴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반미 세력들은 이런 내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 성향의 한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간첩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92년 엘에이(L.A.) 폭동을 경험한 미국 내 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이 될 것이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 정보기관과 군부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일본과 협력하거나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미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2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미국 시민권자 포함)을 10개 주에 걸쳐 있는 40개 지역에 강제이주, 수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 김정은 발 핵무기가 미국 땅 어딘가에 터지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퍼밋(Permit)을 얻어놓고 2차 대전 당시 일본인이 겪어야 했을 정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현명하다. 집단적인 이주와 피신은 인종차별적인 반한인 행동(Anti-Korean Activity)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로 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미정부 차원에서의 용이한 관리 감독과 적극적인 한인 보호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 또한 크지 않다 할 수 없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난의 상황에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고난 극복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테이션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모 집 과 정

####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사
- 기독교육학사

####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석사
- 기독교육학석사

####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육학박사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13-2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누가복음 14:13-24

13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샅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샅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오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초대한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은혜받기를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 고창병 걸린 자가 있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고쳐 보내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멸절한 바리새인의 두령이나 그 집에 초대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가 고창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서둘러 고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의식에 사로잡혀 교권행세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행하고 계시는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사랑의 은혜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영적인 소망은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교훈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 초대받아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주인이 바리새인의 두령이었기에 주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스스로의 지위나 명분을 사회적 지도층 인물로 자처했기에 초대를 받아 가면 의례히 자신들은 상석에 자리를 잡아 앉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날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14:8-11)”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14:12-14)”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썸을 합니다. 자신에게 더 유익한가를 따지고 그 썸에 따라 투자하며 살아가는 처세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이 곧 플러스(+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 조건으로 허락받은 모든 여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너머에 영원히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19-21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두령은 이 세상 조건이 자기의 자랑거리이며, 기대할만한 것으로 여겨 세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으며 행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위를 갖추고 부유한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의 수준을 그 사람들의 지위에 결들여 더 높여 보여지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4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

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했습니다. 이것은 무심코 던진 말이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설교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고는 그 종을 보내어 잔치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결같이 세상조건을 핑계하며 사양을 합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이 말씀대로 했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많다고 전하니 그 주인은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대장을 보낸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길에 다니며 누구든지 청하여 오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기에 강제적으로 끌고 오더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선함을 스스로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강권하라 하십니다. 영을 살피시는 예수님 심정의 기준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유식과 무식

의 차별이 없으며, 부유함도 가난함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4:24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말씀은 처음에 복음으로 초청하셨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그 집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세상적 기대와 꿈에 도취되어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양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세상조건만 생각하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적극성을 띄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전도의 사명감으로 불붙어야 나가서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내세소망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세게 될 그날의 내 입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조건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면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모습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늘 천국 복음을 말하지만 생활하는 것은 세상조건에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모습만 보인다면 오히려 전도의 역효과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전편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천국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신이 내린 항암식품!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 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염소, 염소)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비사염이 소금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 바하함초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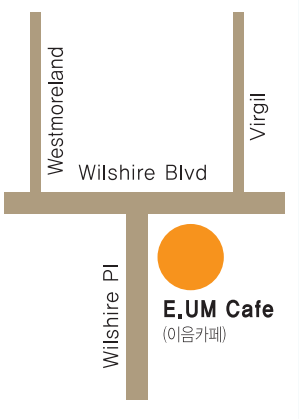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 CBD BAJA HAMCHO Inc.

☎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a.com hempbiou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 이른 비의 기적 I

## 늦은 비의 기적 II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리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 아이티 투찌에 마을 학교를 세웁니다!



## 투찌에 마을 학교 교실을 분양합니다!

- ◎ 6개 교실 1개 강당(교회로 활용), 1개 주방
- ◎ 3,000불 지원으로 교실 1개를 마련합니다.
- ◎ 후원자(기관) 이름으로 교실을 건축합니다.

#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대표: 강태광 목사

T.(323)578-7933